



겨울강

시냇물

임형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1학년

겨울강 얼음 풀리며 토해내는 울음 가까이
잊혀진 기억 떠오르듯 갈대잎 바람에 쓸리고
얼음 밑에 허리 숨긴 하얀 나룻배 한 척이
얼어버린 겨울강같은, 옛 추억 간직한 내
마음을 흔드네.

그대와 나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시간의 무상함을 마음속 깊이, 가슴 아프게
타하며
이제는 얼음장 아래 갇혀버린 지난 여름날의
추억을
이제는 부질없는 되새김을 통해 생각해 낸다.

슬픔은 슬픔끼리 몰려 반짝이는 여울 이루고
기쁨은 기쁨끼리 만나 출렁이는 물결이 되어
이제야 닻을 내려야 하는 겨울강의 나룻배가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의 닻을 내려야 하는
내 가슴을 흔드네...

조강은

서울 개일 초등학교 5학년

시냇물은 시냇물은
흐르는 시계소리

봄에는 조용하게
졸졸졸 졸~졸

여름엔 경쾌하게
찰찰찰 찰찰찰

가을엔 잔잔하게
들들들 흐르네요

겨울엔 얼음판되어
광광광 딱딱한 얼음

시냇물 시냇물은
흐·르·는 시·계